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이소영^{1,*} · 윤소원² · 박지수² · 이지영² · 김나희² · 문세연² · 김남영^{1,†}

¹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22년 5월 29일 접수: 2022년 6월 28일 수정: 2022년 6월 29일 채택)

Influencing Factors the Knowledge and Fear of COVID-19 on Job-Seeking Anxiety of Nursing Students

So Young Lee¹ · Sowon Yun² · Jisoo Park² · Jiyoung Lee²
Nahee Kim² · Seyeon Moon² · Nam Young Kim^{1,†}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²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May 29, 2022; Revised June 28, 2022; Accepted June 29, 2022)

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 157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 연구에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취업불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r=.38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대학 생활 만족도였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코로나19에 의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코로나19,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

Abstract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determine how knowledge and fear of COVID-19 affects job-seeking anxie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7 students from the 1st to 4th graders attending nursing universities. Data collection was collected from December 9, 2021, to February 21, 2022.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24.0

[†]Corresponding author
(E-mail: aqua29@jwu.ac.kr)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job-seeking anxiety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ear of COVID-19($r=.386$, $p<.001$).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b-seeking anxiety of nursing students identified in the order of fear of COVID-19, satisfaction with colle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hat can reduce the fear of COVID-19 in order to lower the job-seeking anxiety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COVID-19, Knowledge, Fear, Job-Seeking anxiety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청년 실업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은 개인에게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1].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18년 9.5%를 넘어섰고, 2021년 조사에 의하면 10%에 근접하고 있다[2].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취업 기회가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만, 간호대학생들도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는 최근 대학에 간호학과가 지속해서 신설되고 간호학과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3]. 2014년 이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자 수는 매년 15,000명에서 19,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학생 대부분이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이 취업을 원하는 병원에 입사하는 것을 쉽지 않다고 인식한다[4].

취업불안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나 졸업 후 취업 준비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취업 준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경우 오히려 취업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질환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간호학과와 같은 의료보건계열 학생들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여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경보단계 중 가장 높은 6단계 ‘Pandemic’을 공식으로 선언하였다[6]. 코로나19는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개

인의 정신적·경제적 영역을 비롯해, 사회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7],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곧 종식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째인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부분 대학생은 진로나 취업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이 느끼는 진로나 취업과 관련된 불안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심각할 수 있다[8].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취업 불확실성으로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9], 간호학과 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임상실습이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10].

코로나19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11]. 이는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이 유례가 없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응 선례가 없어 대책 마련 또한 생경하기에 두려움이 유발되는 것이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과 관련된 정책에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 활동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는 감염병과 관련된 지식이 높을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14].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호흡기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습득하고, 코로나19의 유행양상이나 유행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감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15]. 따라서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식이나 두려움이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변수를 연구한 선행문헌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지식과 관련된 연구[16], 취업스트레스[8,9], 코로나19 두려움[11], 항공 전공 학생들의 취업불안[17,18] 등과 같은 단편적인 연구들이 시행되었으나 3년 넘도록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식, 두려움이 취업불안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코로나19 지식과 두려움 정도를 확인하고 취업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의 범유행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취업불안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 정도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J대학교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비밀 유지, 익명 보장 등에 대해 공지하였다. 연구 대상자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의 다중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 fixed model, R² deviation from zero)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alpha=.05$,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1- β)=.95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총 160명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162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하고 총 157부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6판을 기초하여 윤사라[19]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측정하고 있으며, 본 도구에서 '코로나19의 예방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문항은 도구 개발 시에는 '그렇다'가 정답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방백신 접종이 시행된 후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정답을 '아니다'로 수정하였다. 도구는 총 2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3점으로, 정답률이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2.3.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Ahorsu 등[20]이 개발한 COVID-19 두려움에 대한 측정 도구를 성미현 등[21]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7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성미현[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3.3. 취업불안

취업불안은 조규판[22]이 개발한 취업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3개 하위 요인과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조규판[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2월 9일부터 2022년 2월 21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 대상은 J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직접 강의실에 방문하여 설문지에 관해 설명한 후 배부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간호대학생의 경우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대면으로 각 학년 단체 채팅방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google docs로 만들어 연구 참여 동의할 시에 설문 작성을 할 수 있게 링크를 공유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익명 보장과 질문에 답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문 작성 전에 알리고 설문 중간에라도 불편감을 느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에게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WIN 24.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과 취업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다음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취업불안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78(± 1.47)세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학년 분포는 2학년이 78명(49.7%)으로 가장 많고 3학년이 20명(12.7%)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종교를 조사하였을 때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14명(72.6%)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로 응답한 학생이 13명(8.3%)으로 가장 적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하다'로 응답한 학생이 97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47명(29.9%), '좋지 않다' 13(8.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만족한다' 79명(50.3%), '보통이다' 66명(42.0%), '불만족' 12명(7.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불안 정도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Table 1).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 정도는 연령($F=0.62, p=.539$), 학년($F=1.88, p=.134$), 종교($F=2.06, p=.130$)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상태 정도($F=3.67, p=.028$), 대학생생활에 대한 만족도($F=4.57, p=.0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 정도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로 응답한 간호대학생(2.97 ± 0.83)이 '보통이다'로 응답한 간호대학생(2.86 ± 0.69)과 '건강하다'로 응답한 간호대학생(2.52 ± 0.88)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 정도

연구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과 취업불안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 점수로 1점 만점에 $0.84(\pm 0.12)$ 점이었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5점 만점에 $2.46(\pm 0.70)$ 점이

Table 1. Differences in job-seeking anxie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7)

Characteristics (M±SD)	Categories	n (%)	Job-seeking anxiety		
			M±SD	t / F	p
Age (20.78±1.47)	≤20	87(55.4)	2.71±0.77	0.62	.539
	21-22	51(32.5)	2.64±0.85		
	≥23	19(12.1)	2.48±1.10		
Grade	1 st	27(17.2)	2.58±0.83	1.88	.134
	2 nd	78(49.7)	2.67±0.77		
	3 rd	20(12.7)	3.03±0.78		
	4 th	32(20.4)	2.48±0.99		
Religion	Buddhism	13(8.3)	3.11±0.76	2.06	.130
	Christianism	30(19.1)	2.64±1.00		
	None	114(72.6)	2.61±0.79		
Health condition	Good ^{a)}	97(61.8)	2.52±0.88	3.67	.028 a<b<c*
	Moderate ^{b)}	47(29.9)	2.86±0.69		
	Bad ^{c)}	13(8.3)	2.97±0.83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a)}	79(50.3)	2.47±0.81	4.57	.012
	Moderate ^{b)}	66(42.0)	2.88±0.76		
	Dissatisfaction ^{c)}	12(7.7)	2.71±1.17		

*Duncan test

Table 2. Levels of knowledge and fear of COVID-19, job-seeking anxiety (N=157)

Variables		n	M±SD	Min	Max
Knowledge of COVID-19		23	0.84±0.12	0.13	1.00
Fear of COVID-19		7	2.46±0.70	1.00	5.00
Job-Seeking anxiety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ndition from job-seeking anxiety	10	2.33±0.83	1.00	4.50
	Situation of arousing job-seeking anxiety	11	2.60±0.95	1.00	4.64
	Factor of arousing job-seeking anxiety	7	3.05±1.05	1.00	5.00
	Total	28	2.61±0.85	1.00	4.64

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은 5점 만점에 2.61(±0.85)점이었으며, 취업불안의 하위영역 점수를 살펴보면, 취업불안 유발원인 3.05(±1.05)점, 취업불안 유발상황 2.60(±0.95)점, 취업불안상태는 2.33(±0.83)점 순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두려움, 취업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취업불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r=.386$,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r=-.021$, $p=.798$)과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of knowledge and fear of COVID-19 and job-seeking anxiety (N=157)

Variables	Knowledge of COVID-19	Fear of COVID-19	Job-Seeking anxiety
	r (p)	r (p)	r (p)
Knowledge of COVID-19	1		
Fear of COVID-19	.120 (.134)	1	
Job-Seeking anxiety	-.021 (.798)	.386 (<.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job-seeking anxiety of nursing students (N=15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51	0.225		6.442	<.001
Fear of COVID-19	0.437	0.088	0.365	4.978	<.001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0.310	0.124	0.183	2.496	.014
Adj R ² = 0.18, F = 17.12, p < .001					

3.4.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건강상태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명목척도이므로 가변수(dummy variables)로 변환한 후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다. 케이스 진단에서 표준화 잔차가 3보다 큰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아 157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 상관계수값이 .80미만이였다. 선형성, 등분산성, 정규성 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 가정을 만족하였으며, Cook's distance 값이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이 1.822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 값 역시 0.98로 1에 가까웠고, 분산팽창 지수도 1.01로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회귀방정식[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 = 1.451 + 0.437 ×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 0.310 × (대학생활만족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7.12, p<.001), 모형설명력인 수정된 결정계수(Adj R²)는 0.18로 설명력은 18%로 확인되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β = .365, p<.001)이었고, 다음으로는 대학생활 만족도(β = .183, p.014)로 확인되었다(Table 4).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취업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은 5점 만점에 2.61점이었으며,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강지연과 지명원[18] 연구의 3.31점보다는 낮고 현혜순 등[23]의 연구에서 보고된 2.40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와 현혜순 등[23]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포함하였지만, 강지연과 지명원[18]의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를 졸업예정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취업불안이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간호학과 3학년이 2학년보다 취업불안이 유의하게 높고 고학년이 될수록 증가하였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별화된 심리적 지지와 적극적인 취업 준비 지원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4]. 따라서 각 학년의 취업불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 준비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본인이 인식하는 건강 상태 정도가 '좋지 않다'로 응답한 학생이 건강상태 정도가 '좋다' 혹은 '보통이다'라고 답한 학생보다

취업에 대한 불안이 높았고,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학생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취업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인과 김정미의 연구[25]에서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하는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고 취업과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건강이 대학생활과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높게 유지하여 대학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자신이 수립한 취업목표를 향하는 과정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증진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취업불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나 초조, 불안 등을 느끼면 우울감으로 발전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18] 부정적인 심리가 취업불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취업불안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경험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되었고[26],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감은 높았으며[27], 우울감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취업불안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7].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두려움, 우울감 같은 심리적 상태가 나빠질수록 취업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울과 관련된 감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코로나19 지식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상황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정도는 1점 만점에 0.84(±0.12)점으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SNS 등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 습득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식이 덩달아 높아

진 까닭일 것이다[28]. 즉, 대다수의 연구대상자가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불안과 특별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도구[19]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에 개발되었고 이후 2년여 동안 이미 많은 내용이 정부 지침이나 미디어에 소개되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지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코로나와 공존을 준비하는 2022년 상황에 적합한 지식 도구가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고한 Kim[2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대학 생활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되었으므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학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대학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캠퍼스 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교수 및 교우들과 적극적 교류를 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한다면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간호학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정서 조절 능력을 높이는 취업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업불안을 느끼는 학생을 상담할 때 긍정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희망이 포함된 언어를 자주 말하고 멘토링, 코칭 등의 프로그램[30]을 마련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불안을 느끼는 간호대학생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은 가족에 대한 신뢰나 소속감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31]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학생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이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취업불안을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다음으로는 대학생활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의한 간호대학생의 취업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긍정적 정서를 향상해주는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학년별로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한 대학 간호대학생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전국의 대학생들로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이 다소 제한적이기에 연구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여러 지역에 분포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를 제언한다. 둘째, 현재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도교수 상담,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등이 실제로 코로나19 두려움 완화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M. J. Cha, S. Y. Park, H. J. Song, Y. H. Roh, "The Effect of Collectivism on Anxiety Perception and Mental Health in Youth Unemployment",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18, No.1 pp. 27-51, (2012).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Youth Unemployment Rate [Internet]. Seoul : Statistics Korea, c2021[cited 2021 Dec., 11], Available From: <https://kosis.kr/search/search.do>, (accessed May, 1, 2022)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Internet]. Seoul :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c2017 [cited 2018 Sep., 19]. Available from: <http://www.kabone.or.kr>. (accessed May, 01, 2022)
4. Bae HJ. *Influences of the Expansion of Entrance Quota for Nursing Programs on Rural · Small Sized Hospitals*[dissertation]. pp. 1-149,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5. D. S. Kim, E. H. Kim, "The Impact of Cultural Activities on South Korean Youths' Employment Anxiety and Self-esteem in the Covid-19 er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Vol.21, No.4 pp. 121-132, (2021).
6.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COVID-19) pandemic. [Internet]. World Health Organization. c2020 [cited 2020 May, 01].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accessed May, 01, 2022)
7. R. G. Na, S. Y. Bae, "The Impact of Depression from COVID-19 and Career Anxiety on Career Indecision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and Tourism",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33, No.7 pp. 275-291, (2021).
8. Y. Park,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Anxie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Anxiety Control",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 pp. 229-241, (2022).

9. S. Kwon, J. Ahn, "The Link between Perceived Situational Constraint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Young Adults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daptabi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Locus of Contro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2 pp. 67-88, (2020).
10. S. N. Kim, H. Y. Kim, "The Experience of Get a job Stress on Nursing Student Four Grade during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22 pp. 141-152, (2021).
11.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J. Y. Kim,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32, No.4 pp. 2119-2156, (2020).
12. J. Moon, S. J. Kim, K. Seong, "An Exploratory Study on COVID-19 Phobia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2, No.1 pp. 285-307, (2021).
13. J. T. Wu, S. Riley, C. Fraser, G. M. Leung, "Reducing the Impact of the Next Influenza Pandemic using Household-based Public Health Interventions", *PLOS Medicine*, Vol.3, No.9, pp.e361, (2006).
14. B. L. Zhong, W. Luo, H. M. Li, Q. Q. Zhang, X. G. Liu, et al.,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towards COVID-19 among Chinese Residents during the Rapid Rise Period of the COVID-19 Outbreak: a Quick Online Cross-sec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 Vol.16, No.10, pp. 1745-1752, (2020).
15. H. M. Tork, F. A. Mersal,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Corona virus: Knowledge and attitude of Qassim University students, KSA", *Global Advanced Research Journal of Medicine and Medical Sciences*, Vol.7, No.4, pp. 90-97, (2018).
16. S. J. Lee, X. Jin, S. Lee, "Factors Influencing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Knowledge, Risk Perception,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23, No.2 pp. 110-118, (2021).
17. M. W. Chi,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Anxiety of Air Tourism Major Students under COVID-19 Pandemic: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6 pp. 315-331, (2021).
18. J. Y. Kang, M. W. Chi,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Anxiety and Depression of Face-to-face Service Major Students under COVID-19: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8, No.3 pp. 177-191, (2021).
19. Yun SR. *Correlations between Nurses' Knowledge of COVID-19 and Infection Control Compliance, Resilience, and Psychosocial Well-being* [Master Thesis]. pp. 1-82, Seoul: Chung Ang University, (2020).
20. D. K. Ahorsu, C. Y. Lin, V. Imani, M. Saffari, M. D. Griffiths, A. H. Pakpour, "The Fear of COVID-19 Scal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pp. 1-9, (2020)
21. M. H. Seong, I. S. Kim, M. R. Kang, M. S. Lee, "Validi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COVID-19 Sca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Vol.15, No.4 pp. 391-399, (2020).
22. K. P. Jo,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46, No.2 pp.

- 53-75, (2008).
23. H. H. Sun, Y. Y. Kim, E. S. Jang,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Job-Seeking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2, No.1 pp. 149-160, (2018).
 24. C. H. Jung, J. S. Kim, "Comparison between Nursing Studen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Anxiety",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8, No.3 pp. 21-33, (2018).
 25. Y. I. Han, J. M. Kim, "The Effect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o Employment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3 pp. 408, (2018).
 26. H. Park, N. H. Jung, H. Jo, "A Survey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Vol.6, No.3 pp. 255-278, (2021).
 27. E. H. Ko, "The Impact of Fear and Depression of COVID-19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ourism: Orientation to Happiness as a Moderator",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Vol.29, No.8 pp. 163-181, (2020).
 28. S. H. Park, E. K. Bunm Y. S. Seo, "Knowledge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Coronavirus Disease 19 (COVID-19)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2 pp. 281-289, (2021).
 29. Y. J. Kim, H. Yoo, M.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 261-270, (2016).
 30. Y. Park, A. Jeon, "A Phenomenological Study on Job-seeking Stress during COVID-19 : Focusing on Prospective 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35, No.3 pp. 111-123, (2021).
 31. J. Moon, S. Kim, K. Seong, "An Exploratory Study on COVID-19 Phobia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Vol.32, No.1 pp. 285-307, (2021).